

2019학년도 2학기 교환학생 후기

파견기간	2019.09.01. - 2020.02.22	교 환 학 생 귀국 보고서	소 속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파견국가	독일		성 명	강 지 민
파견대학	TU Berlin		작성일	2020.02.13

이메일 주소: kangijimin131@naver.com

핸드폰 번호: 01038691160

I.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1.1. 교환학생을 결심한 이유

저는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한 다른 친구들처럼 대학 입학 전부터 교환학생을 꿈꿔왔던 케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전공도 어학과는 거리가 멀어서 가야할 필요성도 크게 못느낀 것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교환 프로그램에 꼭 참가해야겠다는 생각보다도, 그냥 휴학을 한 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에 지도교수님과 상담을 받으면서 휴학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왕 한 학기 쉬는거, 남들 눈치보지 말고 외국에 나가서 교환학생을 한 학기 해보는 것은 어떻겠니?"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왕 쉬는 것, 영어 실력도 늘려보고, 외국에서 다시없을 특별한 추억과 경험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호기롭게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1.2. 베를린을 선택한 이유

교환학생을 결정한 것이 3학년 2학기였고, 꽤 늦은 시기였기 때문에 제게 남아있는 영어성적이 토익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토익성적을 요구하는 대학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유럽 내에서 어떤 대학들이 토익을 인정해주는지 봤더니 독일의 공대들과 북유럽 국가의 대학들이 있더군요. 한참을 고민했는데, 역시 이왕 졸업 직전에 마지막으로 가는거, 들으면 이름을 알만한 큰 도시에서 부족함 없이 지내다 오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니 독일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를 잘 하고, 6개월 정도 사는 데 큰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독일에서 가장 큰 두 도시에 있는 공과대학인 베를린공대와 뮌헨공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베를린공대에 합격하여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II. 세부 경험 내용

2.1. 출국 전

2.1.1. 학교 지원 절차

우선 OIA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를 제출하고, 베를린공대에서 지원서 메일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제 기억으로 6월 초 즈음에 도착을 했던 것 같으니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다 보내고 종강을 할 때가 되면 입학허가서와 함께 안내책자도 같이 보내줍니다. 책자 안에 도착하기 전과 후에 어떤 것을 해야하는지가 자세히 나와있으니 꼼꼼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2.1.2. 비행기

4월~5월 사이에 비행기 표를 끊어둡니다. 이때가 가장 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어학원 개강이 9월 첫째 주이고, 그 며칠 전 쯤에 출국을 하는데요, 제가 갔을 땐 개강이 월요일인 바람에 주말에는 따로 숙소를 잡아서 지냈습니다. 귀국날짜는 한꺼번에 정하는 경우도 있고 독일에 와서 예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2월 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수업이 2월 중순에 종강을 하고, 시험은 교수님께 말씀드리면 일찍 볼 수 있게 배려해주니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2.1.2. 비자, 계좌개설, 보험

독일에서는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 발급이 필수입니다. 다만 이 과정이 꽤나 복잡한데다가 독일의 몇몇 관청에서는 외국인에게 불친절하고 잘못하면 새벽부터 줄을 서있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있어서, 저는 한국에서 대부분의 서류처리를 다 하고 왔습니다.

주한독일대사관 홈페이지(<https://seoul.diplo.de/kr-ko>)에 가서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자세히 나와있으니 꼼꼼하게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비자가 발급이 되는 데까지 3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꼭 출국하기 두 달 전부터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독일 비자를 한국에서 발급받으려면 '슈페어콘토'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독일에서 이정도 기간 동안 살만큼의 돈이 있다' 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가장 편리한 방법은 xpatrio 에 가입해서서 여기서 계좌개설과 보험까지 한꺼번에 처리한 후 마지막에 비자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슈페어콘토'는 한 달에 720유로 (2019년부터 금액이 올랐다고 들은 것 같으니 꼭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n개월 만큼의 돈을 묶어두고 매달 720유로 만큼을 돌려받는 방식인데요, 처음에 이 720유로 * n개월 만큼의 돈을 개설한 계좌로 송금해야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xpatrio 공식 블로그에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x-patrio>)

그 외에 직접 관청에 가서 비자나 보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베를린의 경우 워낙에 유입인구가 많아서 관청이 매우 바쁘고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두달 전에 베를린관청 사이트에서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하니 잊지 마세요.

2.1.3. 안멜둥 테어민

독일에서 90일 이상 머무르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안멜둥(Anmeldung)이라는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이는 비자나 기숙사 등록과는 전혀 무관한 절차인데, 쉽게 말해서 직접 베를린 관청에 가서 거주등록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입국하고 2주일 이내로 이 절차를 마무리 해야 하는데, 예약이 되어있지 않으면 관청에 가더라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를린 관청은 대체로 매우 바쁘기 때문에 이 또한 한 두달 전 쯤에 꼭 관청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약하는 절차를 독일어로 테어민(Termin)이라고 하는데, 테어민이 잡혀있지 않다면 저처럼 새벽부터 나가서 줄을 서야 하거나, 줄을 서도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니 꼭 잊지말고 테어민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1.4. 기숙사

베를린 공대에는 따로 기숙사가 있지는 않고, 베를린 전체 시내에 있는 기숙사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아마 7월~8월 사이에 메일이 도착할텐데요, 기숙사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이런저런 서류를 첨부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기숙사들은 여러 종류가 있고 하나만 고를 수 있는데 저는 Siegmunds Hof 를 선택했고, 6개월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기숙사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 역까지 2분, 학교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이며 베를린 시내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정말 편리합니다. 또 한 달에 250유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다만 이 기숙사가 교환학생들만 모아놓은 곳이어서 그런지, 주방이나 화장실 등이 넓고 지저분합니다. 1인실이지만 샤워실 화장실이 방 밖에 있고, 한 층에 남녀혼성으로 24명이 살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 불편함이 꽤 많았습니다. 더구나 방음이 잘 안되는데 파티를 한답시고 거의 매주 새벽까지 시끄럽게 노래를 틀

어놓을 때도 많아서, 베를린에서 안좋았던 기억의 거의 대부분이 기숙사 때문이었던 것 같을 정도로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의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기에 좋은 환경인 것도 사실이니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1.5. 짐싸기

짐은 택배로 부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큰 캐리어 두 개 정도에 다 담아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짐들을 싸야하는지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가을과 겨울에 독일에 살아본 바로는 다음과 같은 물건들은 챙겨오면 꽤 유용할 것 같습니다.

(1) 각종 서류 : 비자 등의 일처리를 독일에서 처리하는 경우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한국에서 다 처리했다더라도 웬만한 서류는 여권 등을 포함해서 복사본을 한 장정도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롱패딩 및 방한용품들 : 베를린의 겨울은 생각보다 꽤 춥습니다! 전기장판같은 것도 가져오면 좋을 듯 합니다.

(3) 휴대폰 충전기, 공유기, 헤어드라이어 그 외 전자기기들 : 베를린은 대부분의 물건들이 한국보다 싼데, 거의 유일하게 한국보다 비싼 것이 바로 이들입니다. 특히 공유기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배가 비싸기 때문에 꼭 가져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연결선은 기숙사에서 제공해줍니다.

(4) 소매치기 방지용 복대, 핸드폰 걸이, 자물쇠 등 :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갈 계획이 있다면 필수겠지요? 독일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으니 한국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색조화장품, 학용품 : 독일에도 있기는 있으나 질이 한국보다 안좋고 비쌉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라면 한 두개씩 리필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 밥솥 : 부피가 커서 챙겨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서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일은 아마존 택배가 잘 되어있는 곳이기도 하고, 20유로 정도면 살 수 있어서 그냥 주문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아니면 인터넷의 독일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쌀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밥을 자주 해먹는 것 같습니다.

(7) 각종 한식재료와 젓가락, 주방가위 : 베를린 물가가 한국에 비하면 정말 싼편이지만, 그래도 한식 같은 것은 비싸다고 생각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춧가루, 참기름과 같은 것들은 비싸기 때문에 가방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사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류는 여기서 3유로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8) 수건, 옷걸이, 양말 : 특별히 비싼 것은 아니지만, 돈 주고 사기엔 또 아까운 것들이니 넉넉하게 챙겨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9) 빨래망, 슬리퍼 : 은근히 구하기가 힘든 물건입니다. 아, 참고로 세제는 따로 가져오실 필요 없습니다. 기숙사 세탁기에 내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국에도 있지만 독일에서 사면 더 싼 것들입니다.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되겠지요?

(1) 침구류 : 기숙사 입소할 때 40유로 정도에 살 수 있기도 하고, 이케아에 가서 30유로 정도에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짐 쌀때 부피를 많이 차지하니 여기에서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침대커버나 베게커버 같은 것은 가져와도 좋을 듯하네요

(2) 세면용품, 기초화장품 : 자타공인 독일의 올리브영, DM에 가시면 질 좋은 샴푸, 린스, 스킨로션, 클렌징워터, 화장솜 등을 한국보다 5배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로레알 샴푸가 5유로도 안한답니다. 정말 싸죠? 처음 며칠 쓸 것만 가져오시면 될 것 같네요.

(3) 옷 : 롱패딩이나 코트 등은 어쩔 수 없겠지만, 독일에서는 웬만한 옷을 싸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를린은 유니클로같은 SPA 매장도 많고, 빈티지 샵이나 유명 브랜드들도 많아서 쇼핑하기 매우 안성맞춤인 도시입니다.

(4) 조리기구 : 후라이 팬이나 냄비 등은 이케아에서 합쳐서 10유로도 안하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무게와 부피를 많이 차지하니 굳이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2 도착한 뒤

2.2.1. 기숙사 입주

Siegmunds Hof에 입주하신 경우라면 시간약속을 잡은 메일이 올 것입니다. 시간에 맞추어 Haus 1 사무실 (2층짜리 육각형으로 생긴 건물) 으로 가시면 기숙사 계약을 할 수 있고, 첫 달 월세(250유로)와 보증금 (375유로)을 내게 됩니다. 이를 결제할 수 있는 비자카드를 한국에서 꼭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런 뒤에는 침구류를 따로 살 것인지 물어보고, 맞은편에 있는 기숙사에 직접 가서 관리인에게 시설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열쇠를 받습니다. 종이를 한 장 받을 텐데, 계좌 개설이 완료되고 나면 통장 번호를 적어서 다시 Haus 1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2.2.2. 인터넷 연결 & 유심칩 구매

기숙사에 처음 입주하면 책상위에 인터넷 연결 선이 있습니다. 그 선에 노트북이나 공유기에 연결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유심 같은 경우에는 vodafone 이나 Aldi 등의 선택지가 있는데 Aldi가 가장 저렴해서 이를 이용했습니다. 근처에 Aldi 마트가 있는지 검색해서 찾아가면, 계산대 근처에 Aldi starter를 판매하고 있을 겁니다. 어플을 깔고 (휴대폰 국가 설정을 독일로 해야 앱스토어에서 어플 검색이 됩니다) 간단한 화상 통화를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나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 4기가에 10유로정도 합니다.

2.2.3. 계좌 개설 (N26)

한국에서 xpatrio를 통해 슈페어콘트를 만든 경우입니다. 묶어둔 돈을 받을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역시 xpatrio 블로그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N26 휴대폰 어플을 다운받고, 화상 통화를 통해 개인 확인을 거치면 가입이 되며, 주소를 적으면 대략 3일 뒤에 우편으로 마스터카드가 도착합니다.

2.2.4 안멜등

한국에서 테어민을 잡았다면, 그 날짜에 가서 가져오라는 서류를 들고 안멜등을 진행합니다. 서류가 빠짐이 없다면 절차 자체는 간단하게 끝납니다. 부득이하게 테어민을 잡지 않았다면 취소되는 자리를 노리는 것이 가장 빠른데요, 당일 날 아침 7시 쯤에 사이트에 들어가면 간혹 빈자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정 안되면 근처 관청의 오픈시간보다 좀 전에 가서 미리 줄을 서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한 두달 전에 꼭 테어민을 해서 갑시다!

2.2.5 보험 활성화

xpatrio를 통해 보험까지 가입한 경우라면 TK사무실에 가서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할텐데요, 베를린 공대의 MENZA (학생식당) 건물 1층에 TK사무실이 있으니, 여기에 가서 보험을 가입하러 왔다고 하고 메일로 받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2.2.6 학교 등록

개강 전, 학생증도 받고 학교 등록도 해야할텐데요, 한국에서 메일로 보내라는 서류를 보내고 담당자에게 가서 추가적인 서류를 내고 사인을 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때 현금으로 250유로 정도 (정확한 금액은 메일로 공지가 갈 것입니다)를 가지고 가야합니다. 이 금액에는 5달치 교통비가 포함되어있어, 학생증이 교통카드도 대체됩니다. 메일로 오라는 시간에 Campus Center에 가면 학생증을 받을 수 있고, 학기가 끝날 때 쯤 반납하면 됩니다. 학생증을 받으러 갈 때 여권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2.4. 학교 및 생활

2.3.1. 독일어 집중강좌

베를린 공대를 지원할 때 독일어 집중강좌를 들을 것인지 체크를 하라고 할텐데요, 9월 한 달간 매일 4시간정도 독일어 집중 코스를 듣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베를린에 적응하면서 친구들도 사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독일어를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생활면에서 자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초 지식이 아예 없는 것 보단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다만 2학기 유럽지역 교환학생이라면 9월은 아마 앞으로 있을 모든 날 중에 가장 날씨가 좋을 때 이므로 잘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어학 코스에 등록을 한 경우라면 9월 첫째 주 Early-bird-meeting 에 오라고 할텐데요, 이는 10월에 있을 OT와 내용이 많이 겹칩니다. 다만 Early-bird-meeting 때는 레벨테스트에 대한 공지를 하고 처음 한 달간 교통 할인권을 받을 수 있는 종이를 주니까 꼭 가지길 바랍니다. 대략 30유로 가까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한 달 권을 미리 사지 말고 이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2.3.2. 개강 및 수업

베를린공대 포함 독일 대학은 10월 중순에 개강을 합니다. 아마 그 전 10월 첫째 주에 수강신청에 대한 공지를 OT 때 해줄텐데요, 교환학생의 경우 특별한 등록절차는 없고 그냥 첫수업에 가서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거나 종이에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수업이 출석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가서 수업을 들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수업은 석사과정은 영어, 학부과정은 독일어로 진행이 됩니다. 개강 전 메일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 목록을 보내줄 것입니다. 다만 간혹가다가 영어로 진행한다 하고 독일어로 하는 수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출석체크나 등록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강 첫주~둘째 주에 최대한 다양한 수업을 들어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2.3.3. 시험

석사수업을 듣는 경우 대부분의 수업이 중간고사나 과제가 없고 기말고사 한 번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대체로 교환학생들은 따로 Oral Test를 보게끔 배려를 해줍니다. 다만 교환학생의 학점인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교수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강하기 2~3주 전쯤에 미리 교수님께 이야기를 해두고 사정을 말씀드린 뒤 날짜를 잡으면 됩니다.

메일로 Shein 이라고 하는 종이를 받을텐데요, 이 종이를 인쇄해가서 시험 당일 교수님께 드리면 됩니다. Shein을 받은 뒤에는 TU Berlin의 국제협력처에 가서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2.4. 그 외 생활 팁

(1) 베를린은 서울보다 1.5배가 더 큰 어마어마한 대도시입니다. 필요한 물건, 먹고싶은 음식 등은 웬만해서는 전부 구할 수 있으니 생활 면에 있어서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2) 독일의 치명적인 단점 중 하나는 일요일에 마트를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베를린에는 일요일에도 여는 마트가 아주 드물게 있는데 학교 근처 zoologischer garten 역의 Ulich이입니다. 일요일 저녁쯤에 가면 사람이 정말 많고 하니까 미리 장을 봐두거나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zoologischer garten 역의 karstadt 백화점 지하에 go asia 라고 하는 아시아마트가 있습니다. 체인점이라 여기저기 많습니다. 다만 Hackescher Markt 역의 Asia Mekong 이 좀 더 저렴합니다.

(4) 독일음식은 남쪽으로 가야 맛있습니니다. 베를린은 북쪽입니다. ㅎㅎ 그래도 굳이 이야기하자면 zoologischer garten의 커리부어스트가 아주 맛있고, Mustafa kebab의 케밥도 맛있습니니다.

(6) 독일음식을 제외하고는 베를린에는 맛있는 식당이 정말 많습니다. 한식당도 여러개라서 골라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갔던 베를린 식당, 카페 목록입니다.

- Shaniu's Noodle House : 중식당. 낙성대 차이나당 보다 맛있습니니다! 강력하게 추천!

- 아리랑 : 한식당. 없는 메뉴가 없고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 꼬끼오 : 무려 한국식 양념치킨을 파는 곳입니다.
- Ishin Tey : 어학원 건물 옆 일식집. 점심에 가면 초밥이 저렴하고, 연어 덮밥이 맛있습니다.
- Distrikt Kaffee : 브런치가 맛있기로 유명한 집입니다.
- Comebuy Tea : 버블티 집입니다. 대만 친구 말로는 대만에서 먹던 맛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 Bonanza Coffee : 베를린은 커피가 유명한데, 이곳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다고 소문난 곳입니다.

이외에도 정말 없는게 없을 정도로 괜찮은 맛집과 카페들이 많으니, 여러 식당들을 도전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7) 다른 도시나 나라로 여행을 갈 경우, 가까운 거리면 Flix bus를, 비행기라면 easy jet 이나 Ryanair 항공사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Flix bus의 경우 국제학생증이 있으면 10%씩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독일 비자가 있으면 유럽 학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독일 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나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되었던건 파리 여행 갔을 때, 루브르, 오르세 등을 포함한 모든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무료로 입장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국제학생증으로는 안되고, 여권에 있는 비자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잘 찾아보면 이런 혜택들이 많으니 야무지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9) 독일은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이고, 그 중에서도 베를린 필하모니는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손꼽힙니다. 특히나 학생증이 있으면 유명한 공연이더라도 취소표를 10~20유로 정도면 구할 수 있으니 관심이 없더라도 베를린 필하모니의 공연쯤은 한번 쯤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 학생증은 포츠담이 있는 C존까지 커버됩니다. 시간될 때 한 번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II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교환학생을 결정한 순간부터 인천 공항에서까지, 지금 졸업을 미루고 교환학생을 가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일까, 내가 외국에서 혼자 반 년 동안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베를린에 도착하고부터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교환학생을 온 것을 후회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친구들에게 교환학생은 갈 수 있으면 무조건 가야한다고 설득하고 다니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곳에서의 6개월은 제 20대 초반에서 가장 빛나고 소중한 순간이었던 것만큼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도시들 중에서도 베를린이라는 도시에 파견을 된 것은 정말 크나큰 행운이었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베를린이 좋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저 독일의 수도니까 살 만 하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결정한 것이지만, 여기저기 다른 도시를 여행 다니고 이곳에서의 생활을 하다 보니 베를린만큼 살기 좋은 도시가 또 없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파견 전과 후로 많은 도움을 주신 국제협력본부 관계자 분들께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뜻 깊은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